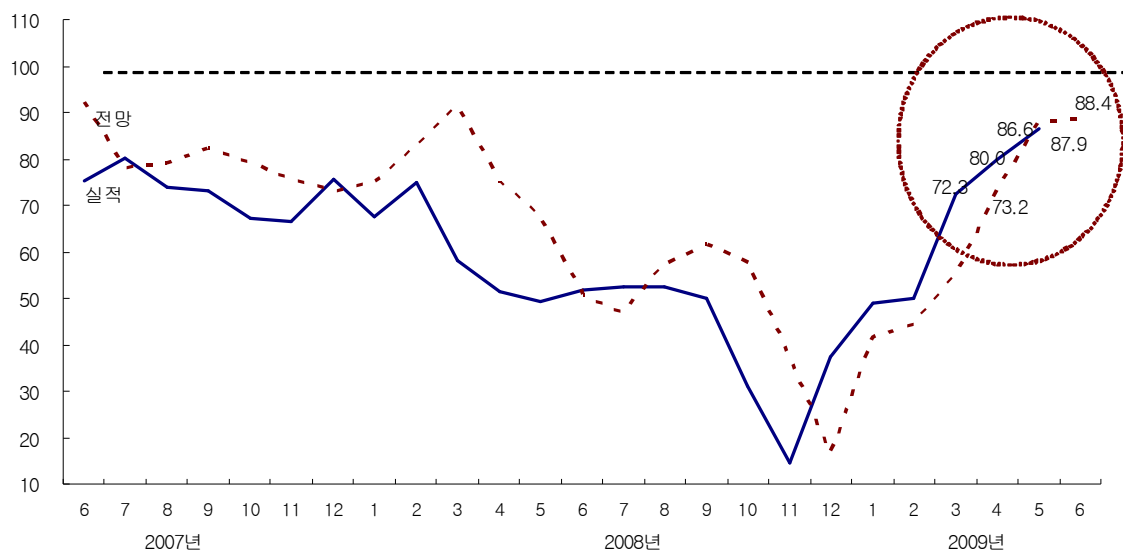


# 2009년 5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SOC 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 영향, CBSI 3년 11개월만에 85선 회복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SOC 예산증액 및 조기집행 영향으로 5월에도 전월 대비 6.6p 상승한 86.6을 기록해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지수가 85선을 넘어선 것은 2005년 6월(86.4) 이후 3년 11개월만임.
- 5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6.6p 상승한 86.6을 기록함.
- 이로써 지수는 작년 11월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으며, 지난 4월 지수가 80.0을 기록해 2007년 7월에 80.1을 기록한 이후 21개월만에 80선을 회복한데 이어 5월에는 2005년 6월(86.4) 이후 3년 11개월만에 지수가 85선을 넘어섬.
- 5월 지수 상승은 지난 4월까지의 지수 상승과 마찬가지로 SOC 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에 따른 공공공사 수주 증가현상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경기종합 BSI 추이 >



- 그러나 6월 지수 전망치가 5월 실적치 대비 1.8p 상승에 그친 88.4를 기록하여 SOC예산증액 및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는 더 이상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움을 시사함.
  - 공공공사 수주 증가현상은 당분간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공사 수주의 침체가 여전히 심각하고, 미분양 주택 적체사태도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비중이 차츰 증가하고 있어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넘어 회복세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중소기업이 전월대비 각각 16.7p, 18.0p 상승한 반면, 중견업체는 13.8p 하락한 78.1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가장 심각해짐.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08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52.5	52.3	50.1	31.1	14.6	37.3	48.9	50.0	72.3	80.0	86.6	87.9	88.4
규모별	대형	80.0	66.7	66.7	44.4	7.7	46.2	53.8	58.3	84.6	83.3	100.0	107.1
	중견	46.4	50.0	44.4	17.9	17.2	35.7	42.9	40.6	66.7	91.9	78.1	102.7
	중소	27.1	38.1	37.1	30.6	19.7	28.8	50.0	50.8	64.4	62.5	80.5	79.1
지역별	서울	68.7	62.6	57.8	33.6	9.8	41.0	49.2	50.9	78.0	89.7	97.5	104.6
	지방	25.5	33.7	38.3	26.7	22.3	31.6	48.4	48.5	63.8	65.0	66.5	69.6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대비 16.7p 상승한 100.0을 기록하여 2007년 9월에 100.0을 기록한 이후 1년 8개월만에 다시 기준선인 100선을 회복함.
- 중소기업 지수 역시 전월대비 18.0p 상승한 80.5를 기록해 2003년 10월 81.5를 기록한 이후 5년 7개월만에 다시 80선을 회복함.
-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13.8p 하락한 78.1을 기록해 5개월만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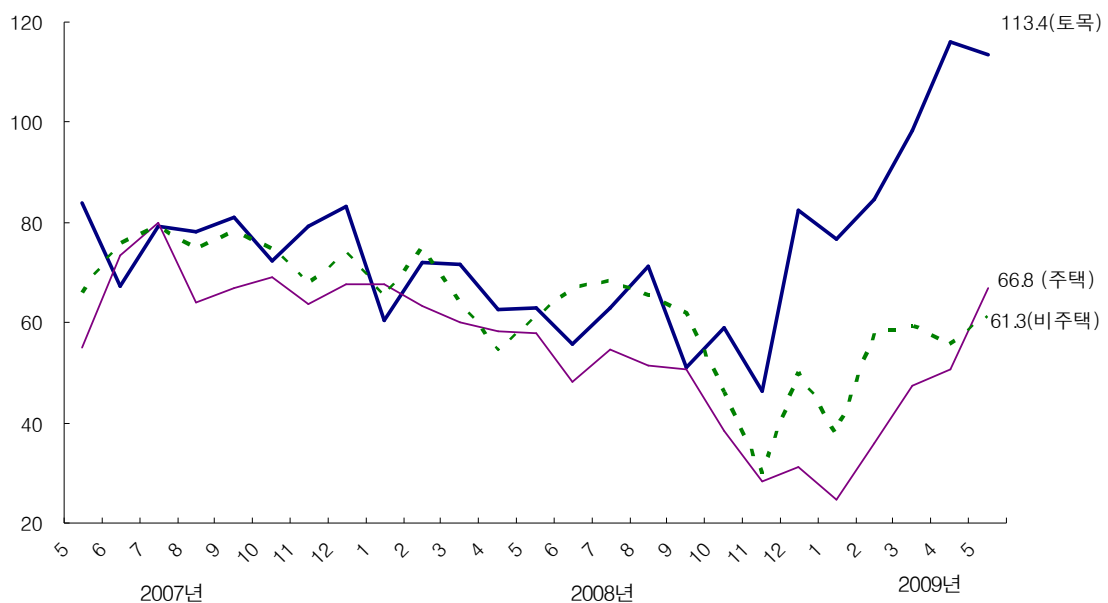
세를 멈추었으며, 대형, 중소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수가 가장 낮아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최근 발주된 공공공사 중 대형공사가 많아 대형업체의 체감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고, 중소기업체는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확대 등의 수혜를 입고 있는데 반해, 중견업체는 공공공사 증가에 대한 수혜가 상대적으로 적고,
  - 또 중견업체의 경우 대형업체에 비해 공공토목 및 주택 사업의 매출 비중이 고르지 못하고, 주택매출 비중만 높은 업체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됨.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와 지방업체 모두 전월보다 증가하였으나, 서울업체가 전월대비 7.8p 증가하여 97.5를 기록한데 반해 지방업체는 전월대비 1.5p 증가에 그치고 지수는 66.5에 불과, 지방업체의 침체가 심각함.
- 서울업체의 지수는 전월대비 7.8p 증가한 97.5로 지난 2007년 7월 이후 1년 10개월만에 90선을 회복함.
  - 지방업체의 지수는 전월대비 1.5p 증가한 66.5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는데 지방 경기침체로 비주택물량이 침체(전월대비 7.3p 감소, 3월 이후 연속 3개월 40선에 머뭄)한데 따른 결과로 판단됨.
- 2009년 6월 건설경기 전망 지수는 대형업체의 긍정적인 전망으로 지수가 88.4를 기록, 5월보다 경기가 소폭 개선(1.8p)될 것으로 전망함.
- 업체 규모별로 전망 지수를 살펴보면 중견업체와 중소기업체의 경우 지수가 각각 77.4와 79.1로 5월보다 경기지수가 소폭 감소(각각 -0.7, -0.6)할 것으로 보았으나, 대형업체는 경기가 더욱 개선(5월 지수보다 7.1p증가한 107.1 기록)될 것으로 전망함.
  - 지역별로 서울과 지방업체의 전망지수는 각각 5월보다 1.2p, 3.1p 증가한 98.7과 69.6로 경기가 5월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공사물량지수, 토목물량지수의 증가세가 소폭 둔화됨에 따라  
전월대비 1.7p 감소한 91.4 기록

- 공사물량 지수는 전월대비 1.7p 감소한 91.4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주택 물량 및 비주택물량 지수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0선에 머문 상태에서, 지난 4월 115.9를 기록해 호조를 보인 토목물량 지수의 증가세가 5월 들어 소폭 둔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토목물량 지수는 SOC 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 효과로 지난 4월 (115.9)에 이어 지수가 100선 이상인 113.4를 기록하여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4월(115.9)보다는 지수가 소폭(2.5p) 감소함.
- 주택물량 지수는 전월대비 16.3p 상승했지만, 지수 자체는 66.8에 불과해 여전히 물량 침체 상황이 심각함.
- 비주택물량 지수도 전월대비 5.7p 상승했지만, 지수가 61.3에 불과하여 국내 경기 침체에 따라 물량 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업체 규모별로 보면 대형업체와 소형업체는 각각 전월보다 14.3p와 1.5p 증가하였으나, 중견업체는 21.0p나 감소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증가한 공공사업 물량에 대하여 대형과 중견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견업체의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대형업체의 경우 토목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15.4p 감소했으나 지수가 여전히 100 이상인 142.9로 호조를 보인 가운데, 주택과 비주택 물량이 각각 전월보다 35.7p, 12.9p 증가한 85.7과 71.4를 기록하여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14.3p 증가한 114.3을 기록함.
- 중견업체의 경우 지수가 전월 대비 21.0p 감소한 84.4를 기록하였는데 토목 물량지수가 전월대비 1.4p 감소하였으며, 주택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각각 전월보다 10.2p, 0.2p 감소함.
- 중소기업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5p 증가한 72.4를 기록하였는데 토목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11.4p, 주택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각각 전월보다 23.6p, 3.7p 증가함.

####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91.4	114.3	84.4	72.4	103.9	63.5
	전망	91.7	114.3	84.4	73.6	97.6	72.5
토목	실적	113.4	142.9	112.9	79.3	132.0	77.3
	전망	107.8	150.0	93.5	74.4	125.8	72.4
주택	실적	66.8	85.7	62.5	49.4	77.7	46.2
	전망	63.1	85.7	54.8	46.1	72.2	45.7
비주택	실적	61.3	71.4	58.1	53.0	71.9	40.6
	전망	65.5	78.6	64.5	51.2	72.1	51.0

주 : 실적은 2009년 5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9년 6월 예측지수임.

- 서울업체가 전월대비 2.9p 감소하고 지방업체가 8.4p 감소하였는데, 중견업체의 비중이 큰 지방업체의 물량지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보이며, 서울 업체와 지방업체의 물량지수는 각각 103.9, 63.5로 서울업체는

물량 상황이 양호한데 반해 지방업체는 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6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5월 실적치 보다 0.3p 증가한 91.7로 5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함.
  - 토목 물량지수는 5월보다 5.6p 감소한 107.8로 5월 보다는 물량이 다소 감소하지만 여전히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함.
  - 주택 물량의 침체가 더 악화(5월 보다 3.7p 감소한 63.1)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비주택 물량이 소폭 개선(5월 4.2p 증가한 65.5)될 것으로 전망함.

**인력/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및 자금조달 관련 상황 다소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자재부문 수급이 여전히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상황이 작년 상반기 인상된 자재비로 인해 아직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금조달 상황도 어느 정도 개선은 되었지만 아직 상황은 다소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공공공사 수주 급증에도 불구하고 민간공사 수주가 저조해 국내 건설수주가 4월까지 전년동기비 여전히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111.8, 112.6을 기록하며 수급 상황은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 지수도 96.6을 기록해 인력수급 상황이 양호함에 따라 인건비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자재비 지수가 88.6을 기록해 작년 상반기 급등한 자재비로 인해 아직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자금조달 및 공사대금수급 지수는 각각 전월대비 8.8p, 1.9p 상승한 89.6, 92.6을 기록했는데, 자금조달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자금·인력·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수금	실적	92.6	92.9	87.9	97.7	92.5	86.9
		전망	90.0	92.9	87.5	89.7	92.4	81.1
	자금조달	실적	89.6	100.0	78.8	89.8	94.0	77.9
		전망	92.2	100.0	87.5	88.5	96.2	81.1
인력	수급	실적	111.8	121.4	112.1	100.0	115.9	100.9
		전망	112.6	121.4	112.5	102.3	116.0	102.5
	인건비	실적	96.6	100.0	103.0	85.2	99.4	87.4
		전망	96.6	100.0	103.1	85.1	99.4	87.3
자재	수급	실적	112.6	114.3	106.1	118.2	110.8	109.2
		전망	111.0	114.3	106.3	112.6	110.9	105.5
	비용	실적	88.6	100.0	90.9	72.7	95.7	73.6
		전망	86.1	92.9	87.5	76.7	91.7	73.1

주 : 실적은 2009년 5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9년 6월 예측지수임.